판도라의 상자

<판도라의 상자>는 그리스 신화 속 ‘판도라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만화이다. 완벽한 여자라고 불리던 판도라는 왜 상자를 열고 재앙을 불러들였을까? 신들이 판도라에게 호기심을 불어넣었기 때문에, 그것이 이유의 전부일까? 만화 <판도라의 상자>는 판도라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판도라를 어떻게 바라봤는지,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망하고, 이를 통해 왜 판도라가 상자를 열 수 밖에 없었는지를 역추적한다. 만화와 함께 제공되는 통계를 통해 우리는 판도라의 이야기가 비단 판도라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, 만화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판도라의 ‘이유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.